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청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곧바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인천공항본부 세관 현장을 시찰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실효성 없는 세관 현장 시찰을 밀어붙이는 이 안건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의 이번 현장 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백해룡 경정을 불러서 함께 현장 시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 법상, 국정감사 법상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백 경정은 관세청 보안 구역에 갈 수 있을지도 의문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현장 시찰은 마치 세관 직원이 마약수사에 가담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경찰은 작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의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4차 현장 검증, 11월 13일에는 5차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10월 10일에는 세관을 다시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과학수사대입니까? 도대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밟히고 검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러면 보여 주기식 정치쑈를 한다는 의심을 살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0일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대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수사관을 비롯해 중인 21명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10시간 넘도록 고강도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따지면 대질신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도 있게 따졌지만 결국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 말고는 밟혀진 게 없습니다. 백 경정은 단 하나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중에 또 세관 현장을 시찰하겠다고요?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또다시 수사 개입을 하려 하는 겁니까? 개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현장시찰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살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지난 15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증인과 세관 직원을 모두 불러 사실상 2차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대질신문하듯 세관 직원을 추궁하였지만 아무런 사실도 밟혀 내지 못한 채 정쟁국감으로 전락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청 국감에 출석한 세관 직원들은 울먹이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범죄자 낙인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세관 현장시찰은 첫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둘째,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셋째, 보여 주기 정치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이렇게 정쟁을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법 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민생국감으로 행안위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진행의 공정성과 협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현장시찰을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지요.

양부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저희 행안위에서 인천세관 현장을 가 보려고 하는 것은 수사 외압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이 수사 외압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세관에 밀반입된 마약에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라고 혐의를 포착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해룡 경정의 설명을 듣는 게 우리 위원들도 심증을 굳히고 어떤 말이 옳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당 차원의 어떤 사주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어떠한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우리 행안위 본래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찰 문제는 꼭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승환 위원님 하시면 이쪽에서 또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서 팽팽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71조와 112조에 따라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조승환 위원 공무원을 범죄 집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22인, 찬성 14인,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